

高級頭腦育成과 技術革新

— 精銳科学技術人力의 養成이 当面課題 —



趙炳夏

〈理博·韓国科学院教授〉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内外의 政治·經濟·社會情勢 속에서 에너지確保문제를 비롯하여 解決해나가야 할 수많은 難題가 앞에 가로놓여 있다. 当面問題의 解決뿐만 아니라 새로운 未来를 能動的으로 開拓해 나가기 위해서 科학과 技術이 수행하여야 할 役割은 너무나 크다.

우리나라 国民生活의 向上과 經濟의 安定成長을 保全하고 先進福祉社会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社會發展의 基本条件의 하나인 科학과 技術의 振興을 世界的的視野에서 그리고 長期的인 眼目에서 推進하는 것이 不可缺하다. 政策의 立案과 執行 및 評価에 있어서는 有機性과 整合性과 實用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科學技術尙는 科學技術研究開發投資에 대한 先審配分機能을 補強하는 것이 国家的次元에서 菩要하고도 긴요한 課題라고 생각한다. 작은 돈이라도 규모있게 써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4일에서 3월4일까지 美·英·佛·獨·日의 世界頂上級 理工大学인 Caltech, MIT, IC(Imperi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is 제6大学, Hamburg-Harburg 工業大学, Tsukuba大学 및 東京工業 등을 찾아가 ① 高等理工教育과 技術革新에 관한 문제 ② Academic Excellency를 提高發展시키는 方

法문제, ③ 教育費는 年間学生 1人当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그 實態調査, ④ 總學長 및 其他學内 主要補職者의 任用方法 등을 直接面談을 통해서 實查한 바 있다.

그들 先進國은 그들의 先進水準을 保全發展시키기 위하여 技術革新에 拍車를 加하고 高級頭腦의 養成確保와 그 活用方法의 改善에 全力投球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오끼나와開發, 北海道開發, 成田國際空港開發 및 筑波研究學園都市開發을 四大國營開發事業으로 推進中이며, 특히 筑波研究學園都市建設은 日本의 技術革新의 中心體役割을 수행토록 目標하고 있다. 旣히 日本이 企業中心으로 R&D를 推進하고 產官學의 整合的인 共同 또는 協同, 協業研究를 수행하여 成果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Hamburg-Harburg 工業大学의 Daniel Meyer 총장은 「우리는 R&D에서 日本에 지고 있다. 컴퓨터에서, 카메라에서, 자동차에서, 시계에서. 그리고 R&D費用은 日本보다 더 많이 使用하고 있음에도!」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수많은 大學과 研究所들이 學術面에 치우치는 바람에 독일의 技術革新은 뒤지고 있다는 反省과 批判이 產業界에서 輿論化되고 있다. Max Planck 연구소에 대한 批判이 그 主된 것이고, Elbe 江北에 Hamburg 大學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Elbe 江南 Harburg에다 Hamburg-Harburg 工業大學을 碩博士為主의 教育을 目標로 設立하고 있다. 독일에다 미국의 MIT나 Caltech 같은 理工大學을 설립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國際經濟戰爭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大学部가 中心(教育部가 따로 있음)이 되어 科學技術기관 및 大学을 動員하여 技術革新에 組織的으로挑戰할 것을 呼訴하고 体制整備를 서둘고 있다. 佛國의 技術輸出에서 特許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現독일水準으로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좋은 교육을 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할 R&D 요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現行制度를 改善하여 上向調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產業에서 提起되는 컴퓨터, LSI Painting, 触媒 등 技術革新에 관한 先端課題에 대해서 政府支援下에 產官學이 協同해서 이른바 「Cooperative Institutional Organization」을 課題別로 設置運營하여 問題解決의 可能性을 基礎的으로 研究하여 確認되면, 応用과 開發연구는 企業負担으로 進行시키는 方法을 採択하고 있다. 그리고 Caltech 總長 Goldberger 博士는 R&D 要員은 高等学校成績이 上位圈 1

세계주요대학별교육비비교

학 교 명	학생 1 인당 교육비/년	운 영 비	학 生 수 (학부학생)	교 수 수 (강사·조교제외)	비 고
M I T	(\$) 36,657	(K\$) 319,356	8,712 (명) (3,200)	1,625 (명)	77—78년도 기준
C I T	35,783	61,153	1,709 (800)	970	"
Imperial College	* 20,348	74,198	4,645 (2,200)	684	78—79년도 기준
K A I S	8,601	6,864	798	135	79년도 기준

주) ○MIT, CIT, IC의 경우 학부를 포함한 교육 경비이며, 대학원만의 경우 \$ 50,000 이상임.

○서울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 경비는 년 약 \$ 2,145 정도임.

* 영국교육위원회 장학금 년 1,750 (\$ 4,375) 포함한 금액임.

%안에 있는 학생을 모집해서 教育과 訓練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자질이 문제이다. 오늘날의 国家發展을 위해서는 創意力이 풍부한 人材, 綜合力이 풍부한 人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全美國의 高等学校卒業生 中 그 成績이 上位圈 1% 안에 있는 학생 중에서 每年 200명은 Caltech에 들어오고, 800명은 MIT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MIT의 800명 중 上位 200名의 자질이 Caltech의 200명의 자질에 相應한다는 것이다.

총학장들과의 面談內容에서 学生教育費 만을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学部学生에게 年間

영국에서는 優秀学生을 技術革新에 誘引受容하는 態勢改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数年間의 調査研究끝에 今年 1月에 發表된 英国의 工学教育改善에 관한 報告書 「Engineering Our Future」에 따라 問題가 公式提起되고 있다.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켜,

\$ 30,000以上, 大学院生에게는 年間 \$ 50,000~\$ 100,000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Caltech와 MIT의 실정이다. 学生負担은 最高 \$ 6,000~7,000/年인 것을 감안하면 国家가 이들 最高頭腦養成費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高度産業社會가 요구하는 技術革新課題는 高度의 學問의 専門性 뿐만 아니라 高度技術의 綜合性을 必須不可缺로 要求하기 때문에 科學技術者의 頭腦養成은 高価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위와같은 國際情勢를 감안하여 高級頭腦養成을 위하여 量보다는 質為主로 教育研究內容의 高度化를 期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 이기는 길의 하나가 創造性과 綜合性이 풍부한 精銳科學技術人力의 養成과 活用에 있다는 점에 汎国民의 理解와 政策의 支援이 있어야만 하겠다.